



"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 봐야 안다"

뜻: 겉모습만 보서는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, 수박을 쪼개 봐야 아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 함께 지내 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속마음 · 관찰 · 경험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수	박	은	↓	속	을	↓	봐	야	↓	알	고
사	람	은	↓	지	내	봐	야	↓	안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수	박	은	↓	속	을	↓	봐	야	↓	알	고
사	람	은	↓	지	내	봐	야	↓	안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↓			↓		
			↓					↓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수박] [속] [봐야] [알고] [사람] [지내야] [안다]

웹에서 보기

